

vol.130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30th Anniversary



Speci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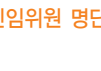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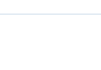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재선출
위원장 취임사

Interview

창립 30주년 특별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2011.April

4

- 03  이달의 주요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재선출
위원장 취임사
- 04  창립 30주년 특별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성숙한 언론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06  30주년 행사소식
국민과 언론을 이어온 30년, 그 신뢰의 역사를 기념하며
- 10  30년 회고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 11  특별기고
기묘한 인연 30년-중재위 30주년을 맞아
- 12  직원마당
맛있는 밥을 대하는 자세
- 13  시정권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재난보도 관련 시정권고
- 14  이런얘기 저런얘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위원회 30년, 프로야구 30년
- 15  음악의 발견
RADIOHEAD ‘Codex’
- 16  신입위원 명단
- 17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 18  위원회 통계현황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재선출 위원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게 된 권성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호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탁월한 경륜과 높은 인품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3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그리고 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많은 전·현직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현직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총회가 조용한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개혁, 새로운 사업 그 어느 것도 여러분께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가 그동안 30년간 일관되게 해온 일, 즉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 그 한가지일 만을 “계속해서”, “제대로” 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리가 조용한 전진을 기약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온갖 개혁의 구호와 약속, 그리고 소통의 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없는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한 신뢰의 축적, 이것은 오히려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용한 가운데 말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민과 언론계 모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히 전진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특히 새로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성숙한 언론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 병 국 장관

2000년 16대 국회의원(경기도 가평·양평)
2004년 17대 국회의원(경기도 가평·양평)
2008년 18대 국회의원(경기도 가평·양평, 3선)
2010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언론  사람은 지난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는 정병국 장관을 만나보았다. 국회 문방위에서만 10년 이상 활동하며 특유의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정 장관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만나본 정 장관의 문화에 대한 열정과 식견은 “슈퍼맨”의 그것이었다. 별명이 어울리는 이유가 단순히 뽀테 안경과 강인한 인상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집자 주)

Q. 정치인으로서 얻기 쉽지 않은 별명을 얻으셨는데요, 실제로 보니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요?

일단 외모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국회의원 시절 늘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을 만나고 민원사항에 귀 기울였던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영예로운 별명을 붙여주신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면 또 국민들께서 “슈퍼장관”으로 불러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Q. 국회에서는 문방위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이제는 문화정책 최고 책임자로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철학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 상임위원회를 고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해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화예술의 위대한 힘은 갈등과 분열을 승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념과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장관이 되면서 표방한 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은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문화예술이 잘못 활용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연의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산업화 측면에서 사람들이 즐길 거리와 일할 거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이른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혹여나 낙오하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문화 안전망을 만들어 공급자나 소비자, 예술인이나 국민 모두가 문화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취임 후 대국민 보고회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미디어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무엇보다 언론은 다양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의 확산과 스마트 미디어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언론산업을 대표하는 신문이나 방송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문화는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일방향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매체들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이 지식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 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신문의 미래 독자 창출을 위한 읽기문화 확산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했지만, 2010년에는 신청건이 2천 건이 넘을 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문화부장관으로서 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론 어려운 길을 걸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언론피해 구제기관으로서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인터넷신문과 포털까지 조정중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선거기사심의에 이르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위상도 많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가 다가올 미디어빅뱅 시대에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인터넷신문이나 포털 등에 의한 인권침해사태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보도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언론분쟁 조정기관으로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건전하고 성숙한 언론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장관으로 취임한 후 분야별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12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정책고객인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훌륭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업무보고가 성공적이라는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및 사진 / 남승균
홍보팀

국민과 언론을 이어온 30년 그 신뢰의 역사를 기념하며

[2011년 위원회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중재부	경 력 사 항
임원	위원장	권 성	서울3	위원장
	부위원장	정학철	서울7	(前)동아일보 편집위원
		김종량	전북	(前)전북일보 편집국장
	감 사	윤 구	서울4	(前)문화일보 논설주간
		위철환	경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운영위원		권 성	서울3	위원장
		김종량	전북	부위원장, (前)전북일보 편집국장
		이영덕	서울1	(前)조선일보 논설고문
		강영수	서울3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은경	대전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길소	강원	(前)강원일보 논설주간
		남승욱	충북	(前)청주KBS 총국장
		남부희	경남	(前)경남신문 논설주간이사
		김재원	제주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시정권고위원		권 성	서울3	위원장
		정학철	서울7	부위원장, (前)동아일보 편집위원
		권 일	서울2	(前)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무	서울4	(前)뉴스시 편집담당 상무
		어경택	서울5	(前)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충일	서울6	(前)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유익선	서울7	이화여대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13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위원장으로 권성(70)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권성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8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행정법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사회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부위원장에는 서울제7중재부 정학철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위원)과 전북중재부 김종량 위원(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을, 감사에는 서울제4중재부 윤구 위원(전 문화일보 논설주간)과 경기중재부 위철환 위원(변호사)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표 참조)을 각각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이 있었다. 서울대 철학과 백종현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법과 도덕의식을 되새기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강연 위원장 기념사 전문 참조)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공개강연 위원장 기념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입니다. 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초청강연에 와주신 전·현직 중재위원님과 강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쁘신 가운데 흔쾌히 기념강연을 맡아 주신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과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담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담론 가운데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삶을 보람 있게 도와주는, 깊이 있는 담론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소셜제목에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말한다면, 「참을 수 없는 담론의 가벼움」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에서 언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宿命과도 같은, 역사적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석학들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부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현실을 보는 풍부한 통찰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강에서는 「칸트에서 법·윤리의 조건과 바탕」을 주제로 서울대 철학과 백종현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백 교수는 칸트의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며,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을 강조했다. 또 법의무와 윤리의무의 차이점과 그 바탕이 되는 도덕감정과 양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강에서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유화사상과 정의-중국의 패권주의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함 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경제력과 힘을 바탕으로 패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할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에는 권성 위원장, 조준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 일반인 등 총 150여명이 참관했으며,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규운, 김두현, 박영식, 조준희 변호사 등 전직 위원장들과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민형기 헌법재판관, 이상훈 대법관, 안영률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전·현직 중재위원 150여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앞줄 왼쪽부터) 민형기 헌법재판관, 이공현 전헌법재판관, 임규운 전위원장, 김두현 전위원장, 권성 위원장, 조준희 전위원장, 박영식 전위원장, 이상훈 대법관

권성 위원장은 리셉션 기념사를 통해 “1981년 당시 연간 44건이던 사건수가 2010년에 2,205건으로 크게 늘었고,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가 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79%에 달하는 등 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전·현직 중재위원 중심으로 초창대상을 한정했던 것은 이번 행사가 위원회의 ‘조용한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위원회 발전에 공이 큰 내외인사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이 있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의해 진행된 수여식에서 김용주 사무총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오광건 연구본부장이 국민포장, 권우동 심리본부장이 대통령표창, 권오근 예산회계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또한 류석창 조사팀장, 이진숙 경기사무소장, 안백수 조사팀 차장을 비롯해 다년간 위원회 출판물 발간에 기여한 태성인쇄기획과 위원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공헌한 한국EDS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리셉션에서는 주요 외빈의 축사와 더불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활약 중인 전·현직 중재위원의 기념촬영이 있었다. 아울러 창립 3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영상물 상영과 위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앞줄 왼쪽부터) 권우동 심리본부장, 오광건 연구본부장, 김용주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제2차관, 권성 위원장, 권오근 예산회계팀장, 류석창 조사팀장
(뒷줄 왼쪽부터) 한국 EDS 임종묵 이사, 태성인쇄기획 김효석, 안백수 조사팀 차장, 이진숙 경기사무소장



참석 귀빈 현장 축하 메시지



민주국가 발전의 척도 언론중재위원회

김두현 전위원장
7, 8대 위원장 (93. 3. 31 ~ 99. 3. 30 재임)

재임기간동안 여러 중재위원님들 덕분에 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언론중재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때 얼마나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는 민주국가 발전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덕분에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언론사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신뢰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년을 넘어 10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영식 전위원장
9, 10대 위원장 (99. 4. 9 ~ 05. 3. 30 재임)

10년 전 창립 20주년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재임시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된 단일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5년 1월 국회에서 위원회의 안을 기본으로 한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피해구제제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50주년, 나아가 100주년을 국민적인 축제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따뜻한 마음 언론중재위원회의 마음입니다

조준희 전위원장
11대 위원장 (05. 3. 31 ~ 08. 3. 30 재임)

여러 중재위원과 사무총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과 머리를 맞고 새로운 위원회 C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회 C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를 표현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권과 알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배색은 언론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서 고민을 함께 한다는 위원회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재임시 여러 언론 선진국을 방문하면서, 언론중재제도가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공인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언론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헌법 정신의 수호자 언론중재위원회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제3중재부장 (93. 3. 20 ~ 94. 8. 31 재임)

다른 나라의 헌법과 비교해볼 때,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 권력자인 국민들은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언론의 자유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언론중재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루어온 발전의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주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중심추입입니다

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북중재부장 (92. 3. 10 ~ 92. 9. 21 재임)

위원회 창립 30년 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니 충북중재부에서 중재부장을 맡았던 때가 생각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시아시피 우리 사회의 질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양대 축에 의해 유지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있어서도 자유와 책임이 공존해야하며, 그 양자를 조화하는 접점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중심추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존중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제일의 ADR기구에서 세계 제일의 ADR기구로 거듭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훈 대법관
서울제4중재부장 (00. 3. 9 ~ 01. 2. 12 재임)

서울4중재부에서 여러 위원들과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언론중재제도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위원회 회지 「언론중재」를 열독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디자인도 좋아졌고 내용도 충실해졌습니다. 회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전직 중재부장으로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분쟁을 법원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 제도는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권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역대 위원장님들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에 더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뛰어난 ADR기구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길 마음으로부터 성원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박선규 제2차관

1981년 13개 중재부 39명의 중재위원으로 시작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는 17개 중재부에서 85인의 중재위원이 연 2천건이 넘는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교육 수준이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바로설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인연으로 만난 언론중재위원회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텔런트
금보라

1986년 조정신청을 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아주셨던 김용주 조사관님이 지금은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합니다. 벌써 25년 전 이야기이니 지금은 추억으로 말할 수 있지만 당시 말도 안되는 언론보도는 어린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였습니다. 이후 언론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언론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정리:홍보팀

▶ 역대 위원장

1~2대 위원장	3대 위원장	4~6대 위원장	7~8대 위원장	9~10대 위원장	11대 위원장	12~13대 위원장
						
안 우 만 81. 3. 31 ~ 85. 3. 30	임 규 운 85. 4. 3 ~ 86. 2. 23	정 희 택 86. 2. 24 ~ 93. 3. 30	김 두 현 93. 3. 31 ~ 99. 3. 30	박 영 식 99. 4. 9 ~ 05. 3. 30	조 준 희 05. 3. 31 ~ 08. 3. 30	권 성 08. 4. 7 ~ 현



- ① 1981년 서울중재부 현판식
- ④ 1991년 위원회 최초 TV광고
- ⑦ 2007년 CI 선포식
- ② 1985년 제주토론회
- ⑤ 1996년 대전 세미나 후 기념촬영(유성관광호텔)
- ⑧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현판식
- ③ 1991년 창립 10주년 행사
- ⑥ 2001년 창립 20주년 기념식 내빈

▶ 표로 본 30년 위원회 신청건수

연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	44	50	71	54	59	49	47	55	121	159	220	381	423	541	528	556	490	602	641	607	659	511	724	759	883	1,087	1,043	954	1,573	2,205

▶ 언론중재위원회 역사

1980년대

- 1981.03.31
▶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서울 4개,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중재부
- 1984.03.02
▶ 경남중재부 설치
- 1985.04.21
▶ 사무국 이전(태평로 프레스센터)
- 1987.11.28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재위원 증원(42명→70명)
- ▶ 사무국→사무처, 사무국장→사무총장으로 승격

1990년대

- 1991.03.29
▶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1995.12.30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권 도입
- 1996.07.01
▶ 서울제5중재부 설치

2000년대

- 2000.02.16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2001.03.30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04.04.01

-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출범

2005.01.01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순해배상 청구권 도입
-인터넷 신문 조정·중재대상 포함

2005.07.28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서울제6중재부 설치

2007.04.30

- ▶ 위원회 새 CI 선포

2009.02.06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포털사이트, IPTV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

2009.09.01

- ▶ 서울제7중재부 설치

기묘한 인연 30년 중재위 30주년을 맞아



양 삼 승
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1981년 3월 31일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니, 금년으로 만 30주년이 되는 셈이다. 30년의 세월이면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접어드는 길로서, 소위 한세대를 지내오게 되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나와 중재위와는 그 출생이전에 이미 수태단계에서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 후 오늘날까지 그 인연의 고리가 이어져 와서 기묘한 느낌이 들기까지 한다.

기묘한 인연의 시작은 중재위의 태동과정인 1980년부터이다. 당시 나는 법원에서 6년차의 판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인사권자로부터 외부기관(당시의 입법회의:국회에 해당)에 파견명령을 받아 법사위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언론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 중재위의 설립 및 반론권제도의 도입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주무전문위원으로 이들을 검토할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다. 당시 이에 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하여 중재위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몇 개월 뒤에 법원으로 돌아와 판사로서 일상 업무를 계속하던 차에 1981년에 서울민사지법의 신청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신청부는 여러 민사신청 사건과 함께 언론중재사건(반론보도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반론보도사건(어떤 주간지가 대상이었다)을 판결하게 되었다. 당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외국, 특히 독일의 법이론과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데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 후 다시 유력 일간지를 상대로 한 최초의 반론보도 청구사건이 제기되었고, 그 처리 및 판결과정에서 반론권이라는 개념에 친숙치 못한 언론사측으로부터 법원이 조직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려 한다는 황당한 오해를 받고 고초를 겪었던 일이 이제는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후 위 신청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도 중재위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중재위 설립 초기에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및 학계에서조차 반론권이라는 개념이 생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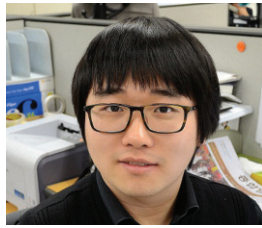
하여 정정보도 청구권과의 차이를 뚜렷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때였다. 따라서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중재위 주최의 세미나에서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위 두 개념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여 반론권 개념의 인식확대에 노력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금석지감이 있으나,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최초 10여 년 동안 설립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히 그 동안 업무의 공정성으로 언론탄압의 의혹을 불식시키자 그 이후의 기간은 중재위에 대한 신뢰획득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 내지는 권한의 확대로 이어졌다. 중재위 실무자들과 나를 포함한 외부의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바람직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고 이는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1995년 직권중재결정권 부여, 2000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중재위를 위한 단일법의 제정,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인터넷신문의 조정·중재대상 포함, 그리고 2009년에 포털사이트도 조정·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1999년에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이제는 직접 중재위 내부로 들어와 오늘까지 다년간 중재위원, 시정권고위원,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함께 하였다. 어찌하다보니 지난 30여 년 동안 중재위의 잉태에서부터 장년기까지, 밖에서 또는 안에서 역사를 함께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다. 중재위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신을 거듭하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라건대, 이제 우리의 중재제도를 외국에도 전파하여 우리가 쌓아 온 경험과 지혜를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중재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맛있는 밥을 대하는 자세



최 승 현
기사심의팀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TV에선 뽀뽀뽀가 처음으로 방송되었고 하늘을 향해선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발사되었단다. 프로야구 출범을 논의했으며,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론기본법에 따라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도 설립되었다.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나에게는 흑백TV와 컬러TV의 애매한 경계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1981년도의 일이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사이 뽀미 언니는 아주머니가 되었고 우주왕복선은 별이 되었다. 프로야구팀은 바뀌고 늘더니 국민스포츠클럽으로 자리 잡아 아홉 구단이 아웅다웅하러 한다. 강산이 세 번 바뀌니 위원회도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공자는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였고 석가모니와 예수가 뜻을 품고 출가한 때에도 이 즈음이란다. 위원회도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경험하진 못하였지만 역사를 느낄 수는 있다. 술자리에서 간간히 듣는 선배들의 옛날 옛적이야기 -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진 않아도 흥미진진한 설화들. 창고에 있는 먼지 쌓인 간행물은 촌스럽지만 멋스럽고, 차분하게 정리된 오래 전 통계자료들은 컴퓨터와 모니터와 사람이 바뀌어도 지조있게 역사를 지킨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써 온 흔적들이다. 위원회의 과거 30년 역사에 참여하진 못하였지만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의 30년을 보내게 될 나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이 뜨끈뜨끈하게 나는 때깔 좋은 쌀밥을 마주한 기분이다. 누군가가 함께 먹자며 그 동안 만들어 놓은 밥을 내밀었다. 거머리를 피해 김을 매고 밤새 가마솥의 불을 지켜가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밥이다. 맨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나 그 정성을 알기에 그냥 먹을 수는 없다. 김에 싸먹어도 좋고 고추장에 쓱쓱 비벼먹는 것도 좋겠지만 구점반상을 차려 푸짐하게 나눠 먹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렇기에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 30년 동안 위원회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의 30년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언론 환경의 변화에 맞춰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여태까지 위원회를 지켜온 모든 분들이 해 온 것처럼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살려가며 바람직한 언론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자나 예수, 석가모니와 같이 거창하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보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푸짐한 반찬을 차려 위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에 입사할 후배에게 대접하고 싶다. 갓 대학교를 졸업한 뽕망뽕망한 후배가 위원회의 역사에 대해 묻는다면 30년 전의 전설을 들려줄 것이다. 이 맛있는 밥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자랑스레 이야기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재난보도 관련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형사건이나 국가적 재난시 유족의 오열 모습이나 지나친 클로즈업 화면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다음은 시정권고문 전문이다.

시정권고문 전문

권고사항

대형사건·사고보도와 재난 관련보도를 할 때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그 초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난 해 발생한 세칭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의 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때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슬픔에 빠진 유족의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 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역경과 비통 속에서도 마땅히 드러내야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보도의 품위 문제와도 이것은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보도관행의 문제점은 언론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언론사에 공통적인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사고의 보도에 있어서 그 경위와 피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에 속하는, 희생자나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해 하는 모습까지를 강조하여 공개 보도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동의가 없는 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상세한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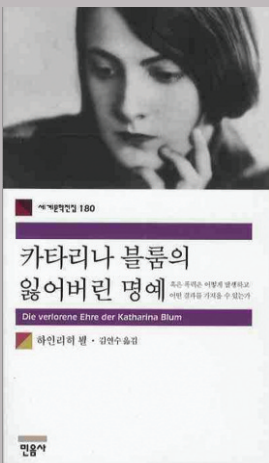
대형사건·사고나 국가적 재난을 보도할 때 언론은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줌으로써 언론 자신의 품위를 함께 염두에 두는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앞의 권고사항과 같은 시정을 권고는 바입니다.

이달의
책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지음 | 김연수 옮김 | 민음사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성실하고 친절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살아가던 27살의 여인 카타리나 블룸.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다. 살해된 사람은 유력 일간지 <차이통>의 기자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은 살인이 발생하기 전 닷새간의 행적을 추적하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카타리나는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어느 댄스파티에서 만난 한 남자와 밤을 보낸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그녀를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그 남자가 은행강도에 살인혐의까지 있는 자라며 그녀를 공모자인 것처럼 심문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은 그녀를 '살인범의 정부', '음탕한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있었다. 미모의 이혼녀가 살인범의 정부라는 언론보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가 난무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사건을 꿰맞추려는 억지 논리까지 등장하면서, 어느새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마녀'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선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한 인간의 삶과 명예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꽤 오래전에 발표된 책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별로 낯설지 않다. 선정적인 언론과 카타리나 블룸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연구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위원회 30년, 프로야구 30년



구 울 화
기획팀 팀장(변호사)

<http://blog.naver.com/esteelauder>

30년 전 프로야구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난 내가 열성 야구광으로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좋아하는 야구선수를 쫓아 다니느라 학창 시절을 송두리째 바치게 될 줄을, 대학 시절 프로야구 중계방송 캐스터가 되겠다며 방송국 문턱이 닳도록 시험을 치르게 될 줄을, 심지어 응원팀의 우승에 감동받아 사법시험 준비를 결심하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랴. 당시 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꼬마였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당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프로야구의 슬로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일 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조용히 태동한 언론중재위원회가 훗날 나의 직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 역시 인생은 예측불허이며 열역학 법칙보다도 더 복잡다단하게 돌아간다.

30년간 프로야구에도, 우리 위원회에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프로야구 원년 총관중은 240경기에서 141만8768명이었으나

2010년엔 133경기에서 592만8626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입장수입은 14억여원에서 412억여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30년 전 우리 위원회의 연간 사건 수는 44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20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30년간 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중재건수는 총 16,315건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잇단 선전을 거듭하며 실력과 위상을 끌어올렸고, 우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 역시 국민과 언론의 신뢰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지키며 그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프로야구의 괄목할 만한 30년의 성장에 내 피와 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입장료가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한편 뿌듯해지기도 한다.

향후 30년 동안 나의 야구도, 나의 언론중재위원회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조직에 어떤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주자 만루에서 까마득히 홈런을 날리는 거포 4번타자였으면 좋겠고, 9회말 투아웃에서 직구로 삼진을 잡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에이스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욕심은 부리지 않으려다. 야구는 9명이 저마다 9분의 1의 역할을 다할 때 이길 수 있는 스포츠 아니던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리라. 때로는 이 한 몸을 아끼지 않고 데드볼을 맞고 나가 결승 득점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자를 한 베이스 더 보내기 위해 희생번트를 대는 날도 있겠으며, 그런 날에도 나는 4번타자나 에이스 못지않게 소중한 중재위원회의 가족일 것이다. 행여 억울하게 횡사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 홈 베이스를 두고 밟지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어떡하. 야구가 영원히 계속되듯 우리 위원회 역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조용히 전진할 것이며 내가 그 일원이라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RADIOHEAD 'Codex'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위대한 예술은 대개 '연속되는 역사'에 대한 통찰과 '공동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이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이들은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품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지금 어디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명쾌한 해답이 없다. 해답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자신의 소설을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길>이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이런 질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반복 작업이다.

음악에서도 '연속되는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온 특별한 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짐작되다시피 이들은 당장의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적인 주목이나 명예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작업)이 놓일만한 자리를 찾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사의 흐름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모색한다. 선배들의 유산을 참조해 장르적인 전통을 고민하고 동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역사의 연속성'과 '공동체'에 대한 예민한 감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한 라디오헤드도 이런 감각으로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는 밴드 중 하나다. 평범한 기타팝 밴드로 데뷔했지만, 이들은 질문과 함께 스스로를 단련시켰고 그 결과물로 항상 우리를 놀래주었다. 라디오헤드는 영민하게도 밀레니엄의 긴장을 파고들어 시간 속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던져놓았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발표한 「OK Computer」를 통해 마치 영국 록음악의 유산이 집대성된 듯한 화려한 교향곡을 구축해냈다. 2000년 이후에는 「Kid A」를 시작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21세기를 위한 록음악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되었지만 동시에 늘 혁신적인 음악으로 리딩 아티스트(leading artist)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런 라디오헤드를 평론가들이나 음악팬들은 마치 록음악에 있어서 '세계정신(Weltgeist)'쯤 되는



것처럼 대접해왔다. 이들은 언제나 예술에서 경이로움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록음악의 미래를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 결성 20년차를 넘긴 베테랑 밴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설로서 우상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8번째 앨범 「King Of Limbs」는 외견상 예전과 같은 놀라움을 안겨주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37분에 불과한 이 앨범에서는 이들의 앞선 앨범들이 연상되는 익숙한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혹자는 조바심을 숨기지 못하고 과거의 재탕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 앨범 역시 정체성과 포지션을 자문하고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무엇보다 이 앨범은 실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각상처럼 우상화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처럼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작업이 외부에서 비롯된 요구나 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앨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Codex>를 들어보면 이러한 점을 느낄 수 있다. 이 곡은 고요한 호수를 비행하는 잠자리에 관한 곡이다. 짧은 피아노 모티브를 바탕으로 미

니멀하게 전개되는 이 곡은 인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음악에서 인상주의는 시각화된 음악으로 취급되곤 하는데, 그보다는 '외부세계의 내면화'가 더 정확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Codex>는 호수 위를 나는 잠자리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곡이 아니라, 호수의 잠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있는 곡이다. 이런 아름다움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다.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밴드일 수 있을지도 정말 흥미롭다.

애니버서리(Anniversary)는 축하와 격려가 어울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이 함께 성찰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역사의 연속성'과 '공동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기를, 그래서 라디오헤드의 음악처럼 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신임 중재위원 위촉



지난 3월 31일 신임 중재위원 29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중재위원이 위촉되었다.

중 재 부	성 명	경 력 사 항	비 고
서울제1중재부	임 병 렬 이 정 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연합뉴스 이사대우 논설고문	
서울제2중재부	장 진 훈 전 용 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광신고등학교 교장	
서울제3중재부	권 성 손 영 준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임
서울제4중재부	장 재 윤 윤 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문화일보 논설주간	연임
서울제5중재부	최 복 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6중재부	노 정 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7중재부	정 학 철	(전)동아일보 편집위원	연임
부산중재부	신 우 철 박 경 우	부산지법 부장판사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김 채 해 조 성 호 윤 덕 우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구미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중재부	정 경 현 조 동 수 박 남 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전)광주일보 주필 광주교육대 총장	
대전중재부	한 박 무 김 수 정	(전)MBC 부국장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경기중재부	김 재 환 류 석 호 홍 속 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전)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강원중재부	함 종 식 이 관 열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임
충북중재부	최 병 준 조 덕 현 권 영 애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충북일보 논설주간 (전)충청일보 문화부 차장	
전북중재부	정 재 규 이 영 원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임
제주중재부	부 상 준 조 맹 수 박 경 숙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제민일보 편집국장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COMMISSIONER



▶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박성희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 하이닉스 반도체 사외이사 유임

한부한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은 3월 30일 경기도 인천 하이닉스 반도체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 됐다.



▶ 전주지방법원 법관 워크숍 참석

심병연 위원(전북중재부, 변호사)이 지난 11일 전주지방법원이 개최한 법관 워크숍에 참석해 '변호사가 바라본 재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번 워크숍은 법정중심의 재판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패널로 참석

김덕모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3월 2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와 호남미래연대 및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비례대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NEWS

위원회 소식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합동 워크숍에서 특강

김용주 사무총장은 3월 26일 서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합동 워크숍에서 '사례로 보는 언론보도 분쟁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사무총장은 회원사 발행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엽서 발행

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엽서가 발행됐다. 기념엽서는 창립기념일인 지난 3월 31일 우정사업본부에서 20만부가 발행됐으며, 30주년 기념 엠블럼과 언론중재법을 돋보이게 확대한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엽서는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 유공직원 표창

권성 위원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근무직원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유공직원 표창] 강현석 홍보팀장, 김일경 대구사무소장, 김문성 접수상담팀 차장, 조사팀 최명진, 접수상담팀 이진아, 총무팀 최은진, 총무팀 최서윤, 전북사무소 박혜경

[30주년 근속] 이미경 기사심의팀장

[20주년 근속] 조남태 교육팀장, 권오근 예산회계팀장, 정희성 총무팀장

2011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1년 3월까지 모두 473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113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8건(동의 17건, 이의 11건), 조정불성립결정 43건, 기각 6건, 각하 2건, 취하 229건(피해구제 157건 포함), 계류 5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69.5%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129건, 신문 113건, 방송 38건, 뉴스통신 24건, 잡지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3월까지 36건의 중재결정을 내렸으며, 4건은 계류중이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14건, 반론청구 14건, 추후청구 1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3월	정 정	187	62	10	7	0	18	2	0	65(39)	23	68.5
	반 론	34	13	2	0	0	3	0	0	8(5)	8	76.9
	추 후	45	0	0	0	0	0	0	0	45(39)	0	86.7
	손 배	207	38	5	4	0	22	4	2	111(74)	21	65.0
합 계		473	113	17	11	0	43	6	2	229(157)	52	69.5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 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 각	계 류
1~3월	정 정	14	14	0	0	0
	반 론	14	14	0	0	0
	추 후	12	8	0	0	4
	손 배	0	0	0	0	0
합 계		40	36	0	0	4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 3월 21일 3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65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의자 신원공개 42건, 사생활 침해 23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지 30건, 인터넷신문 23건, 방송 5건, 뉴스통신 4건, 주간지 3건이다.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 현황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출범한 이후 3월 31일까지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위반 2건 등 3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현재 유예 중이다. 이번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상담 현황

위원회는 2011년 3월 한 달 동안 23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 36건, 재상담 예정 26건, 기타 10건, 법적절차 안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신문 54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39건, 방송 33건, 뉴스통신 30건, 주간신문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3월말 현재 27회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7회, 지자체 2회, 교육연수기관 5회, 인턴십 프로그램 9회, 법무 수습교육 1회, 기타 3회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국민과 언론의 소통의 다리 30년 신뢰사회를 향한 위원회의 마음입니다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언론피해상담 <http://people.pac.or.kr>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